**우리의 흑암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데이빗 윌커슨**

****

† 우리의 흑암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은

그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항상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를 때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한 멋진 예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보지 않겠니?"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요0204.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부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은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양 문화권에서 어머니를 "부인"이라 부르는 것은 가장 높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의 시간이 이른 것을 압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을 위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그분께 첫 번째 말했을 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잔에 아직 포도주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이 사람들의 자원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확증하기 위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은 아무런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지할 아무런 육적인 자원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나를 완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병과 잔이 다 비워지고 말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공급자로 올 때에, 잔 하나에라도,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 떨어진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때가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원이 바싹 말라 버렸을 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바로 그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혼인 잔치에 참석한 내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결혼 피로연이 난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분과 친밀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의 첫 사랑은 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너희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입을 옷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때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강한 사랑과 염려를 보일 때이다!"

전세계가 엄청난 어두움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혼동의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에서

모든 자원들을 다 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위로와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우리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가장 큰 기적을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자원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연이은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필수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이 지은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 중에서...)